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

성경: 눅 12:49-50, 요 12:23-24, 14:2, 10-11, 17, 20-21, 23, 15:1-8, 16, 16:13-16, 계 21:3, 22

- I.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요 14:10-11, 20, 17:21, 23, 14:23, 계 21:3, 22.
- A. 믿는 이들과 주님의 관계는 ‘연결’, ‘연합’, ‘합병’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연결’은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주님과 하나인 것에 관한 것이고, ‘연합’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에 관련된 것이며, ‘합병’은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곧 상호 내재하는 것이다 — 요 15:4-5, 벰후 1:4, 요 14:20.
- B.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그 존재와 하시는 일 모두에서 영원부터 하나의 합병체이시다 — 요 14:10.
1.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심으로 합병되어 계신다 —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 요 14:10상, 11상.
 2.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합병체이시다 —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요 14:10하)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요 14:11하)
- C.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 우주적인 신성한 합병체, 곧 신성한 삼일성의 셋이 영원 안에서 회의를 여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을 시간 안으로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동의하셨음을 말해 준다 — 벰전 1:20, 미 5:2, 비교 창 1:26.
- D. 육체가 되시기 전에 이 우주적인 합병체는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이 이 우주적인 합병체를 인성 안으로 가져오셨다 — 요 14:10-11.
- E.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 과거에 이미 합병되어 계셨다. 합병되신 이분께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여,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한 합병체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7:21.
- F.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한 합병체가 된 것을 계시한다.
1. “그날에는” — 아들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2.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로 합병되심),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거듭난 믿는 이들이 아들 안으로 합병되고,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안으로 합병됨),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께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합병되심)
 3. 요한복음 14장 17절(“실재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에 나오는 실재의 영께서 ‘안에’ 계신 것은 20절에 나오는 세 번의 ‘안에’의 총체이다.

II.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눅 24:26),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요 12:23-24).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불을 땅에 던지신 것이었다(눅 12:49-50).

A.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신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육체 되심을 통해 얻으신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다 — 요 12:23-24.

B. 주님은 답답하시고 억압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져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도록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 받기를 열망하셨다 — 눅 12:49-50, 요 12:23-24.

1.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밀알이셨다.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깨어졌을 때, 동시에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 곧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었다.

2.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시고 신성하신 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신 후에,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의 충격력이 되셨다.

C.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 인간 생활 중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며, 아버지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 요 17:1, 행 3:13, 눅 24:26.

D.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로 옮겨지셨다.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요 1:14, 고전 15:45하, 빌 1:19.

E.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의 만아들이 되셨고(행 13:33, 롬 8:29),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으며(고전 15:45하, 요 20:22),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種)이 되게 하셨다(벧전 1:3).

III.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인데, 이 합병체에는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포도나무와 그 영의 아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

A.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첫째 방면은 성전으로 예표된 아버지의 집이다 — 요 14:2, 2:16-21, 담전 3:15.

1.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선민으로 구성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그분의 영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신성한 요소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처들’이 된다 — 요 14:2, 23.

2.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구속받은 선민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과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되어,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선민의 상호 거처가 된다.

B.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둘째 방면은 아들의 참포도나무이다 — 요 15:1-8, 16.

1.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표징인 참포도나무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2.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며, 이들은 본성상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요 3:15) 참올리브나무 안으로 접붙여졌다(롬 11:17, 24). 참올리브나무와 참포도나무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참올리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3. 참포도나무의 접붙여진 가지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끌렸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었다.
- C.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셋째 방면은 그 영의 새 아이이다 — 요 16:13-16, 19-22.
1. 새 아이 곧 새사람은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다. 이 새 아이 곧 새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심으로 창조되었다 — 요 16:21, 13-15, 엡 2:15.
 2. 이 새 아이 곧 새사람은 아버지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으며, 그 영에 의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태어났다 — 벰전 1:3, 롬 1:4, 요 3:6하.
 3.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떠나시는 것을 겪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의 첫 번째 무리는 해산하는 여자였고, 부활 안에서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이 곧 새사람이셨다 — 요 16:20-22, 골 3:10-11.
 4. 믿는 이들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새사람을 입으며, 이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결한다 — 엡 4:23-24.

IV.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재 안에 사는 것이다 — 요 14:2, 10-11, 17, 20, 23.

- A.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분을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0:1, 91:1, 9, 요 15:4-5, 계 21:22.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14:21, 23.
1.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 — 계 2:4-5, 골 1:18하, 요 14:21, 23, 엡 3:16-17, 비교 시 27:4.
 2.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로서, 이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 요 14:23.
 3.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온 존재를 더욱 누릴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 고전 2:9-10, 엡 6:24.

- C.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인 현재의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5:39-40, 6:63, 고후 3:6, 계 2:7.
1.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갖고,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지적이신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 — 엡 5:26, 6:17-18.
 2.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8:31, 15:7, 요일 2:14.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흠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위로 열매를 맺는다 — 왕하 19:30, 사 37:31, 요 15:7-8.
 4.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5:7, 고후 2:17, 13:3, 고전 14:4하.
 5.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옛 처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새 처소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의 상호 내재하는 하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 요 17:17, 21, 엡 5:26.

V.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교회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합병체이다 — 계 21:3, 22.

- A.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한 인격, 곧 단체적이고도 위대한 한 하나님-사람이다. 이 단체적인 인격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이다. 이것은 그 영과 신부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된 것이다 — 계 22:17상.
- B. 하나님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시다. 수많은 믿는 이들인 우리도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이 인격들은 이제 서로 안에 있다 — 요 14:20-21, 15:5, 요일 4:15-16.
- C.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위한 우리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 계 21:2-3, 22-23, 시 90:1, 27:4, 신 33:27.
- D.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장막의 중심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이다. 우주적이고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이 합병체 안으로,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 계 21:3, 출 16:32-34, 히 9:4, 계 2:17.
 1.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금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궤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시면서 지성소의 실재가 되신다. 이것은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며, 그 영이신 아들께서 지성소의 실재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 위대한 합병체 안에서 그분에 의해 살며, 이 합병체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이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3.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확대와 영원한 표현을 위해 결국 한 성, 곧 위대하고 신성하고도 인간적이며 우주적인 합병체로 확대되신다.